

광주시, 맥쿼리에 철저 대응 혈세 130억 원 낭비 막았다

지난해 제2순환도로 1구간 지원금 절감...재정 운용 '숨통' 통행량도 증가...요금 인하 등 시민 체감할 대책 마련해야

광주시가 지난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지원금을 당초 예상보다 130억원 이상 절감하면서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일보의 연속 보도(2018년 12월 3일~2019년 3월 5일)와 2019년 11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법인세 환급금 70억원을 우선 귀속조치한데다 2019년 법인세 지원금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구간 통행량이 증가한 것도 작용했다. 광주시가 나머지 48억원에 대해서도 광주 순환도로투자(주)의 투자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로부터 받아 내겠다는 입장인어서 향후 양측이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28일 광주시가 공개한 '제2순환도로 1구간 2019년 재정지원금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64.5억원을 넘어섰던 재정지원금이 2019년에는 129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2016년 12월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광주시가 2019년 지급할 것으로 추정했던 지원금 규모가 251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2억원을 아낀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보건복지 분야 시 발전을 위한 신규·계속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

만큼 융통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2017·2018년분 법인세 환급금 70.6억원을 귀속조치하고, 2017·2018년분 법인세 환급금 30.2억원, 2016년분 법인세 보전분 18.6억원을 반환받는 등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다. 모두 119억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9년분 재정지원금에서 기존 환급금 70억원을 귀속조치했다.

시 분석 결과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2019년 1구간의 운영 비용은 318.3억원이었으며, 통행료 등 수입은 228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비 부족분 90.3억원, 2016년 12월 협약을 변경하면서 새롭게 책정된 재정지원대체자금 및 이자

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성실하게 이행해 재정 절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추가 환수에 나서게 되면 투자자와 마찰이 불가피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광주시가 업체의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6

년 재정경감단에 포함된 전문가들은 '법인세 납부 불가'로 의견이 모아져 결정됐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2016년 10월에는 2012~2014년 법인세를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투자자와 합의했다가 같은 해 12월 광주시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회계사는 "법인세를 광주시가 보전해주기로 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자도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법인세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업체 및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을 거치면서 법인세가 크게 절감될 가능성도 높은데다 1구간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어 통행요금 인하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선 6기에서 협약을 변경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절감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증명하기도 어렵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며 "민선 7기에서는 이러한 추상적이고 부풀려진 성과 발표가 아니라 1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미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선정

문광부 5년간 1000억 지원...서남해안 글로벌 관광도시로

목포시 30여개 사업 추진

목포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됐다. 목포시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지역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이번 공모에는 지난해 기초지자체 24곳이 참여했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9개 도시가 최종심사에 올라 경쟁을 벌였다. 관광거점도시 선정은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지닌 도시로,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세계수준

의 관광자원과 수용태세를 갖춘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목포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국비 500억원과 지자체 부담분 500억원을 포함, 총 1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는 공모에서 선정됨에 따라 근대역사문화자원 등 지역의 차별화된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광주를 포함해 서남해안권 9개 시군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100년의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세계적인 도보여행의 메카로 만들고, 국제 슬로푸드 페스티벌과 목포 9미(味) 글로벌라이제이션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맛의 도시로 육성한다. 또 국내 최장 목포 가을 페스티벌 등 기존 콘텐츠를 강화하면서 세계 재즈페스티벌 등 새로운 체류형 문화예술 축제를 연중 개최해 대한민국 최초 '예향의 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 부유식 바다분수 시설을 업그레이드해 수상무대를 설치하고, 바다 분수쇼와 문화예술 공연, 해상 불꽃쇼를 융합한 국내 최초의 복합문화 콘텐츠를 개발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우한 폐렴 예방 특별방역 28일 오후 광주 서구 유스퀘어 터미널에서 서구 보건소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특별방역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23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안공항 통해 입국 내·외국인 전수조사

중국인 372명 등 대상
'우한 폐렴' 감염 파악 나서
지자체 해외연수도 취소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사회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중증 정보들도 많지 않으나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관련 루머가 확산하면서 공포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2·6·14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외국인 전수조사, 중국행 항공편 잠정 중단, 중국 방문 일정 연기 등 우한폐렴 확산을 막고 지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 체계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상황 브리핑을 갖고 무안국제공항 등을 거쳐 중국에서 도내로 들어온 모든 내·외국인을 전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우선, 설 연휴 기간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을 372명(상하이 105명, 산야(三亚) 112명, 장자제(張家界) 155명)으로 파악하고 감염 여부를 파악하

는 등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안병욱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1차 조사로 이상 증상을 확인하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중국행 항공편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장자제-산야 노선을 주 2회 운항 중인 제주항공은 오는 30일부터 운항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고 무안-산야(三亞) 노선도 운항 지속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국 사천항공도 31일부터 무안-장자제 운항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렇게되면 중국행 3개 노선 중 동방항공이 운항하는 상하이-푸둥 노선을 제외한 무안공항을 통한 2개 중국행 하늘길이 막히게 된다.

지자체들의 해외 연수 일정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5월로 예정됐던 김영록 전남지사 등을 비롯한 중국 장시성 교류 방문 일정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시장개척단과 국악공연단 등과 함께 대대적인 방문단을 꾸릴 계획을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미뤄고 중국 저장성에 파견한 전남도청 직원 1명의 철수도 검토 중이다.

특랑만권·강진만권행정협의회 소속인 김철우 보성 군수와 정중순 장흥 군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감안, 29일부터 10박 12일

일정의 포르투갈·스페인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그동안 의심환자 3명이 있었지만, 음성판정으로 격리 해제했으며 능동감시 대상자는 1명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다.

광주시도 이날 이용섭 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우한폐렴 관련 방역체계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관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내외에서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자치구에 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대응 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대국민용, 의료인용 맞춤형 예방수칙 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청와대도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4~23일 질병의 발원지인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 3023명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모두가 주목하는 그곳,
학동 삼익세라믹, 평화맨션이
다시 옛 명성을 되찾습니다!

1월 31일
주택홍보관
OPEN (예정)

* 상기 이미지 및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시 변경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동구 학동 프리미엄, 그 위에 서다
학동 센트럴시티지역주택조합 [가정]

무등산 + 초역세권 | 대단지 프리미엄 | 전세대 남향위주 4-베이 | 일반분양 대비 저렴한 가격

주택홍보관 오픈기념 경품 이벤트

EVENT 01 | 오픈 기념 3일간 사은품 증정
대상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 상품 리면 5개입 | 기간 매일 선착순 200명

EVENT 02 |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경품 행사
대상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 상품 가전제품/생필품 | 추첨 2월 1일, 2일 / 15시

1. 추첨일은 추첨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경품들은 상품수급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경품 당첨은 1인 1건에 한하며, 중복 당첨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경품 추첨시 추첨 현장에 있는분만 참여 가능합니다.

84㎡A,B,C / 121㎡ | 문의. 062) 225-0011
총 920세대(예정)

시행 (예정) 학동센트럴시티지역주택조합 | 시공예정사 | S쌍용건설
지관리 | 우리금융그룹 | 우리자산신탁 | 업무대행사 | (주)동원밸리시움